

“그랜저 검사’ 무혐의는 제 식구 감싸기”

범사위, 서울고검·중앙지검 국감서 집중 성토 식약청 국감선 중금속 낙지 파동 책임 공방도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업자로부터 그랜저 승용차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 모 부장검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해 집중 성토했다.

우선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검사와 관련된 이런 문제가 터지면 아프냐”고 물은 뒤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이 “솔직히 좀 아프다”고 답하자 “국민은 더 아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의혹이 제기된 정 전 부장을 ‘그랜저 검사’라고 부른 뒤 “검사에게 그랜저 승용차를 사주고

향응을 접할 돈이 없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법의 보호를 받고 살 수 있겠냐”고 따졌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사례를 들어 뇌물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선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한 전 총리는 의자 위에, 이 지사는 옷장에 놓았다는 돈 때문에 기소됐고 야당의 의원은 차용증을 써줘도 기소된 적이 있다”며 정 전 부장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노환균 지검장은 “사건 보고를 받고 철저히 수사한 뒤 혐의

인정되면 엄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전 부장은 지난 2008년 건설업자의 청탁을 받고 후배 검사에게 사건을 잘 봐달라고 부탁한 뒤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업자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감 청문회에서 조현오 경찰청장의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문희진 민주당 의원은 조현오 경찰청장의 업무 보고가 끝나자마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국민적 혼란을 야기했던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에 대해 조 청장은 명백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며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어물어물 하고 있다”며 답변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이어 “어제 봉하마을과

노무현재단에 확인해보니 조 청장이 내정된 이후 전화 한 통 건 사실이 없다”며 “유족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다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간사인 김경권 의원은 “문희진 의원의 발언은 범사위와 검찰에서 다룰 문제”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식약청 국정감사에서는 중금속 낙지 파동에 대한 책임 공방이 벌어져 눈길을 끌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기준을 무시한 서울시의 잘못된 조사 발표로 낙지 가격이 40% 정도 떨어지는 등 어민들이 큰 피해를 본 것은 물론 국민이 낙지를 먹어도 되는지 혼란이 빠지게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웃고는 있지만... 7일 오전 국회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팽팽한 신경전 속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생정치 잘못하면 ‘짜짜꿍’ 오해”

손학규, 상견례서 안상수와 신경전

민주당 손학규 신임 대표가 7일 취임 인사차 여야 대표를 차례로 예방했다.

특히 손 대표와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안 대표는 “축하드립니다. 사실 난 조 직이 약하다고 해서 2등 할 줄 알았는데 당선돼 반가웠다. 내 지역구와 같은 경기도 사람이니 합리적이어서 여야가 상생의 정치로 가지 않겠는가 해서 반가웠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안 대표는 “그런데 처음부터 너무 겁나게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좀 헛갈린다”고 신경을 건넸었다.

이에 손 대표는 “역시 민심이 무섭다. 당내 조직기반 없이 당선될 수

있던 것은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이고 정권교체에 대한 당원들의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며 “너무 강한 게 아니라 그게 국민의 목소리”라고 맞받았다.

이에 안 대표는 “합리적인 분이니까 상생의 정치를 펴는 게 어떨겠느냐”며 분위기 전환을 시도했지만 손 대표는 “상생이란 것이 자칫 ‘짜짜꿍’이 되자는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다”며 날을 거두지 않았다.

손 대표는 또 ‘배춧값 파동’을 거론하며 “친서민 정책이라고 하지만 서민 생활을 미리 내다봤으면 최소한의 대책은 나왔을 것”이라며 쓴소리를 이어갔다.

이날 안 대표는 월 1회 정례 회동을

제안했으나 손 대표는 “정치가 국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원내 기능에 당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의를 받았으니 생각해보겠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손 대표는 이어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를 만나서는 시종일관 각뿔한 모습을 보이며 “앞으로 잘 지도해주시고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조정 역할을 좀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대표도 “순학규 대표께서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면서 일부 언론을 보니 전당대회의 효과, 컨벤션 효과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 전당대회의 효과를 넘어서 새로운 개념의 대표로서 민주당의 여러 가지 평판과 지도도를 확 높인 거 같다”고 추켜세웠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국감 브리핑

“연구기관장 영남 50% 지역편중”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원장 및 감사에 영남 출신 인사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등 지역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조영택 의원이 7일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 출연 22개 연구원의 원장 중 11명(50.0%)이 영남 출신으로 영남 편중이 심각했다. 반면 호남 출신은 5명(22.7%), 서울 출신은 3명(13.6%), 충청 출신은 2명(9.1%)에 불과했다.

또 제주 출신이 1명이었으며 경기와 강원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연구원장 및 감사가 특정 지역 출신으로 편중됨에 따라 연구원의 핵심 보직 인사도 영향을 받는 등 인사 왜곡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고위직 41% 영남 출신”

국세청 고위직 인사의 41.2%가 영남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조배숙 의원이 7일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과장급 이상 51명의 출신지를 분석한 결과, 영남 출신이 21명으로 전체의 41.2%나 됐다. 이어 서울·경기 출신이 14명(27.5%)였고 호남 출신은 9명(17.6%), 충청 출신은 6명(11.8%)에 불과했다. 특히 대구와 경북지역(TK) 출신이 14명이나 됐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영남지역 편중 인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국세청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많다”며 “능력있는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 탕평을 이루는 인사 또한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순천경미장 발매소 축소 방침 위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위원인 민주당 서갑원 의원(순천)은 7일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농림부와 한국마사회의 ‘순천 화상경미장 재승인’이 장외발매소 신규 증설 불허 및 단계적 축소하는 정부 방침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2008년 11월 수립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는 장외발매소의 신규 증설을 불허하고, 매출액을 2013년까지 전체 매출의 50% 이하로 낮추는 등의 단계적 축소 방침을 규정한 ‘장외발매소 운영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돼 있다.

계획 수립 당시 전국의 장외발매소는 총 32곳으로, 순천시 화상경미장이 개장되면 33곳으로 늘게 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성기 확대는 비과세, 가슴 확대는 과세 남녀 차별”

김성곤 의원 주장 화제

너무나 점잖아서 주목을 잘 받지 못하는 김성곤 의원이 7일 국정감사에서는 가장 많은 관심을 끌었다.

김 의원이 7일 국회 기획재정위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내년 7월부터 가슴확대 수

술, 쌍꺼풀 수술 등 미용 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과세키로 한 점을 상기시키면서 “남성 성기확대 수술은 과세 안 하는데, 여성 가슴확대 수술은 과세하겠다는 것은 남녀차별 아니냐”고 주장하면서 화제를 뿌린 것이다.

그는 “남성 성기는 의료적으로 보면 크기에 관계없이 성생활에 문제가 없는데, 여성 가슴은 평



소외 외부에 쉽게 드러나 왜소한 사람은 콤플렉스가 될 수 있다. 남녀차별하는 게 아니냐”고 목청을 높였다.

김 의원의 거침없는 발언에 국감장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이 청장은 “지병인지, 미용인지 구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답변, 서둘러 논쟁을 매듭지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첫째 2003년 7월 김 부겸 의원 등과 함께 한나라당을 탈당, 열린우리당 창당을 주도했으며 2007년 대선을 앞두고 18대 총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탈당,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선 후보의 선대본부장을 지냈으나 당 운영 방식을 문제삼아 탈당했다. 부인 심연옥(47)씨와 1남.

▲부산(49) ▲고려대 총학생회장 ▲통일민주당 총재비서 ▲청와대 정부비서관 ▲한나라당 대외협력위원 ▲열린우리당 최고위원·사무총장 ▲16, 17대 의원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孫, 김영춘 지명직 최고위원 내정

486·영남 끌어안기 다목적 포석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7일 부산 출신의 대표적 486(40대·80년대대학·60년대생) 인사인 김영춘 전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내정했다.

지역적 보안을 위한 영남 인사의 기용은 어느 정도 예고된 일이었으나 그동안 하마평에 오르지 않았던 김 전 의원의 낙점은 ‘깜짝 카드’로 평가된다.

김 전 의원이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손 대표가 당내 화합을 위한 ‘탕평인사’의 신호탄을 쏘

아울렀다는 해석도 나온다. 손 대표 캠프의 좌경적이었던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은 최고위원직을 강하게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이번 인선은 영남과 486 끌어안기, 야권 통합 등을 염두에 두고 수권 의지를 강조하려는 다목적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김 전 의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통일민주당 총재 시절 비서로 정계에 입문한 뒤 청와대 정부비서관을 거쳐 16, 17



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첫째 2003년 7월 김 부겸 의원 등과 함께 한나라당을 탈당, 열린우리당 창당을 주도했으며 2007년 대선을 앞두고 18대 총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탈당,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선 후보의 선대본부장을 지냈으나 당 운영 방식을 문제삼아 탈당했다. 부인 심연옥(47)씨와 1남.

▲부산(49) ▲고려대 총학생회장 ▲통일민주당 총재비서 ▲청와대 정부비서관 ▲한나라당 대외협력위원 ▲열린우리당 최고위원·사무총장 ▲16, 17대 의원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제발
멈추기만 해도 땡큐죠

빠지는 머리칼락 개수에 신경 쓰이면 효과가 검증된 탈모증 치료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14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피부과에서 남성형 탈모증 환자(18세~65세 남성) 170명 대상 임상시험 결과, 모발 개수와 굵기가 증가되어 효과가 검증되었습니다

검증된 탈모증 치료제
마이녹실

■ 마이녹실 임상결과

참여자의 92.9%가 효과 확인

구분	효과 확인률
매우호전	2.94%
호전	27.65%
약간호전	62.35%
기타(호전없음, 악화)	7.06%

전국 14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피부과에서 남성형 탈모증 환자 170명을 대상으로 마이녹실 5% 24주간 임상시험 결과, 158명 중 92.9%가 호전되어 그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매우호전 5명(2.94%), 호전 47명(27.65%), 약간호전 106명(62.35%)

남성형 탈모증 환자에 대한 5% Minoxidil 외용액의 공개 다기관 임상연구(제4상 임상시험, 대한모발학회 공동연구) - 대한 피부과학회지 2009년 3월호 발표

■ 임상연구 참여기관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관동여대 명지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문당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 원주교과대학 원주독병원,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인하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이상 가다나 순) 14개 대학병원 피부과 공동참여

바르는 탈모치료제
마이녹실

1일 2회 4개월 이상 꾸준히 바르십시오

검색어: 검색창에 마이녹실을 치십시오 검색

제품문의 | 080-024-5525
02-2600-3884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분별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꼭 읽고, 의약품사와 상의하십시오.]